

전국 공시지가가 1.52% 상승... 세종 6.45% > 서울 3.25% 順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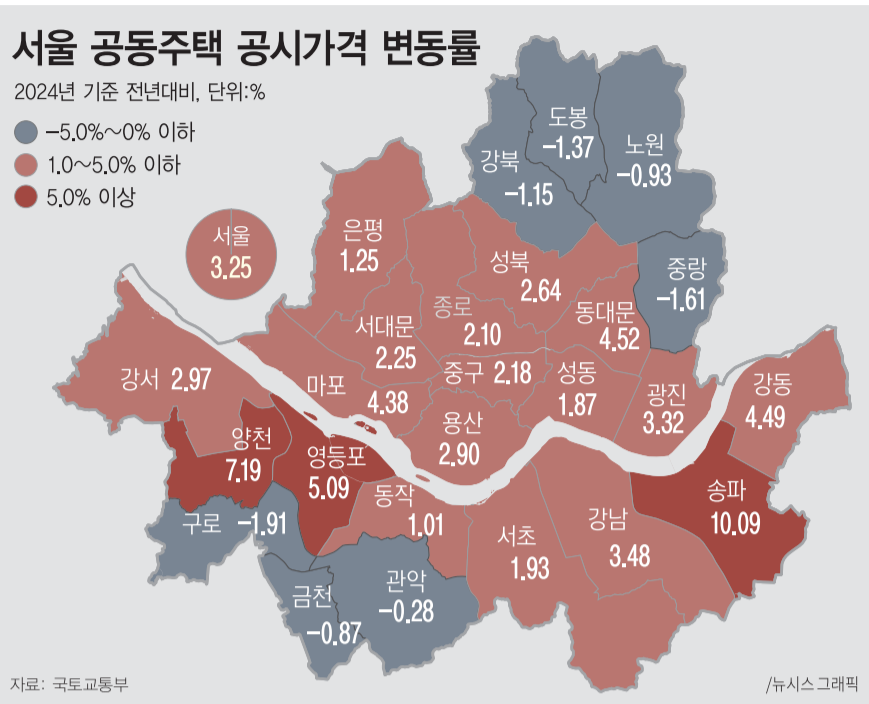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중위 1.68억... 작년비 100만원 ↓ '더펜트하우스 청담' 최고가 기록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오른다.

평균만 놓고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세종 등은 상승한 반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은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지난 2005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9.05%, 17.20%로 크게 뛰었지만 작년에는 -18.6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이나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시세 변

동은 크지 않았다.

세종의 공시가격이 6.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울(3.25%)과 대전

(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는 공시가격이 각각 4.15%, 3.17% 하락했고, 부산(-2.89%)과 전북(-2.64%), 전남(-2.27%)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랐으며, 양천구(7.19%)와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구로구(-1.91%)와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 등은 공시가격이 낮아졌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 6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동주택별로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공시가격이 164억원(전용 407.71㎡)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2위는 역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이 128억6000만원(전용 464.11㎡)이다. 3위와 4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로 각각 106억7000만원(전용 244.72㎡), 98억9200만원(244.75㎡)이다.

서초구에는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4㎡(77억1100만원)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8㎡(74억9800만원)이, 강남구에서는 '아이파크' 전용 269.41㎡(71억5100만원)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의 다세대주택 '장릉레저타운' 전용면적 17.76㎡로 273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앞줄 왼쪽부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반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금융사고, 온정주의 벗어나야”

영업관행·조직문화 개선 강조 “내부통제 역량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방은행에 잘못된 영업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19일 이 원장은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방금융지주 회장들과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도 참석해 지방은행과 지역 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과 상생으로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은행들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불거진 금융사고를 교훈삼아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로 영업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은행 감사역 연수를 통해 우수 검사기법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지주와 은행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방은행의 지역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역경제·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금감원으로 구성된 ‘지역금융발전 협의체(가칭)’를 마련해 지방은행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이제 우리 만날까요?
함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화생명이 세계와 만납니다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암보호서비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작됩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글로벌암보호서비스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을 앞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암을 통해 암 예방 관리를 도와주고 암 진단 시 담당 주치의에게 암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최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암 치료 후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588-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 이후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호서비스는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가입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5310호 (2023-11-14~2024-11-13) 준법감리인 확인필 CS 23-11-038

www.hanwhalife.com